ISSN 2664-4002 (Print) & ISSN 2664-6714 (Online)
South Asian Research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bbreviated Key Title: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 Volume-6 | Issue-6 | Nov-Dec -2024 | **DOI: https://doi.org/10.36346/sarjhss.2024.v06i06.009**

Original Research Articl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tal Advice for me, Suora Anna-Maria! (Tcheonzamun 113th-128th)

Hyeonhi Regina Park[1], K. DaegonAndrea Kim[2], Jiah Anna Kim[3], Sangmin Lee[4], Rosa Kim[5], Alain Hamon[6], Sohwa Therese Kim[7], Sangdeog Augustin Kim[8*]

[1]Canaan Elderly care center, (99 Byeonjeong 6 gil,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Elderly care and welfare, Joongbu University, Kumsan, Republic of Korea
[2]268-3 Dosol-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3]An attaché of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in Madagascar, (former address) Département d'Expertise Economique, Université de Paris-Est Creteil, Paris, France
[4](Former address) Local public official related to youth policy, Okcheon, Republic of Korea
[5]A responsible of 'Cité Universitaire de Paris' in France, (former address) Specialité d'Economie politique,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Paris, France
[6]Enseignant en mathematiques et informatique, (former address) Ecole Pascale, Paris, France. Eib La Jonchere, Bougival, France
[7](Former address)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8](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Corresponding Author:** Sangdeog Augustin Kim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Article History
Received: 28.10.2024
Accepted: 02.12.2024
Published: 24.12.2024

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cheonzamun (in English it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Korea, it is firmly believed that Tcheonzamun is written by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several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can be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Kim, 2023) and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In this work,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on Korean grammar method (Park *et al*., 2021). In this study, Tcheonzamun poem was translated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Chinese grammar is on the following order; B A D C. But Korean grammar is D C B A (Park *et al*., 2021) for the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 ABCD.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on the method of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This study concerns (Tcheonzamun113th-12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tal advice for me, Suora Anna-Maria! (Tcheonzamun 113th-128th)'.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21-124 遐(Ha) 邇(i) 壹(il) 體(Tche). My husband! Even though the distance is far (遐) from here or near (邇), it does not matter. My husband! The body (體) is one (壹), when the two persons have the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Keywords: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21-124 遐(Ha) 邇(i) 壹(il) 體(Tche). My husband! Even though the distance is far (遐) from here or near (邇), it does not matter. My husband! The body (體) is one (壹), when the two persons have the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cheonzamun (in English it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Korea, it is firmly believed that Tcheonzamun is written by Chinese people (Han, 1583). However, several

Copyright © 2024 The Auth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for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can be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Kim, 2023) and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In this work,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on Korean grammar method (Park *et al*., 2021).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study, Tcheonzamun poem was translated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Chinese grammar is on the following order; B A D C. But Korean grammar is D C B A (Park *et al*., 2021) for the translation of Chinese character ABCD. The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on the method of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RESULTS AND DISCUSSION

This is the work of translation of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Korea, it is called as Tcheonzamun. This study concerns (Tcheonzamun113th-128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tal advice for me, Suora Anna-Maria! (Tcheonzamun 113th-128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13-116 愛(Ae) 育(Yug) 黎(Lyeo) 首(Su).

My husband! Do you want to teach (育) somebody (黎) who has talent (首) for guiding other people? My husband! The following thing is the most important for you. Please treat the person warmly (愛)!

117-120 臣(Sin) 伏(Bog) 戎(Yung) 羌(Gang).

My husband! However, there is another method. If somebody likes especially the force (戎), or the person is very rough (羌). You had better be modest (伏) to the person. My husband! The person will become your friend (臣) with this modest method of you.

121-124 遐(Ha) 邇(i) 壹(il) 體(Tche).

My husband! Even though the distance is far (遐) from here or near (邇), it does not matter. My husband! The body (體) is one (壹), when the two persons have the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125-128 率(Sol) 賓(Bin) 歸(Kwi) 王(Wang).

My husband! If we want to make other people (王) to be successful, we become to help (歸) each other. My husband! If you will treat other people as if they were guests (賓) for you, and then, they will help you. Finally, all of you become together successful (率).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ital advice for me, Suora Anna-Maria! She came from Italy to Japan. She gave a very important advice to Augustin.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0 August 2013.

84 안나-마리아 수녀님 고맙습니다! (천자문 쉰일곱 (신복융강)臣伏戎羌).....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2 년 12 월 17 일. 천자문(千字文)은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우리네 삶의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쉰일곱번째 글입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 "안나-마리아 수녀님 고맙습니다!"입니다. 이번 글의 번호는 1000 자문에서 113-128 번째 입니다. (애육려수) 愛(`) 育(`) 黎(/) 首(V) 남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首) 그런 사람들을(黎) 가르치려고 한다면(育) 그 사람을 우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愛). [맞는 말이지요. 제 아내 현희 레지나는 우리 집 아이들을 참 따뜻하게 하면서 잘 키웁니다. 예뻐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꼭 꾸짖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우리 부부 중 한명이라도 아이들 마음과 가까운 곳까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신복융강) 臣(/) 伏(/) 戎(/) 羌(-).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거친 사람이나(羌) 힘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戎) 내가 먼저 고개를 숙임으로써(伏)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臣).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 부부는 에미(메리지 인카운터)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우리집 막내딸 소화 데레사에게 일수 요셉 아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제게 간혹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상덕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드라. 근데 나쁜 사람이 쪼끔 더 많은 것 같어야!"라고요. 아부지는 갑자년(1924 년) 출생으로 일제 시대 때는 일본 징용으로 몇년간 일본에 가서 일해야 했고, 육이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한국군에 들어가 또 몇년 군복무를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세대라서 "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

아부지처럼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우리 일수 요셉 아부지는 사물을 아주 단순하게 봅니다.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부지는 늘 " '예스까 노까' 말해야지!" 하시면서요. '예스'와 '노'는 영어, '까'는 일본말의 묻는 말이지요. 말에서도 느껴볼 수 있네요, 우리 아부지 세대의 어려운 모습이요. 그런 아부지가 제게는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하이일체) 遐(/) 邇(V) 壹(-) 體(V) 몸은(體) 하나입니다(壹), 가깝거나(邇) 멀거나(遐) 상관 없이요. (솔빈귀왕) 率(`) 賓(-) 歸(-) 王(`)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가 좋게 되고, 또 내가 또는 우리가 우리들 옆에 있는 남이 잘 되도록 하면서(王) 서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을 서로 서로에게 보내주게 됩니다(歸).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賓) 내가 그분들을, 그분들이 나를, 서로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더불어 좋아지게 되겠지요(率). [우리가 일본에 살 때 매달 한번씩은 나고야 교구의 주교좌 성당이 있는 누노이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인을 위한 미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같은 유학생 가족 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도 가족이 함께 미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이 또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저와 제 아내 현희는 카놋사 수도회 소속 수녀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안나-마리아 수녀님(Suora Anna-Maria)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당에서 만나게 되면 수녀님은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수녀원으로 우리 가족을 초대해 주신 적도 있었지요. 일본에서 4년쯤 살고 있을 즈음, 저는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논문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작은 논문 몇편을 써야했는데, 그때 저는 작은 논문 중에서 마지막인 다섯번째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결과를 쓰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래서 그런 것이구나!"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논문 쓰는 데 꼭 필요한 작업들이었지요. 그 논문은 결과 해석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밤늦게까지 있게 되고 그러다보니 피곤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던 어느 주일 날, 우리 가족은 누노이께 교회의 한국인 미사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뵌 안나-마리아 수녀님은 우리 가족과 저를 보시더니 "미스터 킴, 무슨 일이 있으세요? 피곤해 보이는데요!"라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수녀님께 "요즘 논문을 써야되는데요. 실험 결과의 해석이 잘 안되요. 그래서 힘들어요!"라고 말씀드렸지요. 안나-마리아 수녀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미스터 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하늘로 부터 오는 것을 청하세요!" "그리고 피곤하게 지내지 말고 쉬면서 하세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의 일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바라던 '논문 결과의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결과 해석을 지도선생님인 오오시마(大 島)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됐네! 이제 논문을 쓰면 되겠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쓰고 이어서 박사논문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마리아 수녀님이 제게 해주신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세요! 하늘로 부터 오는 것을 청하세요!'라는 말씀 덕분입니다. "안나-마리아 수녀님 고맙습니다!" 우리 둘의 주님이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씁니다, 2013 년 8 월 10 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낮.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21-124 遐(Ha) 邇(i) 壹(il) 體(Tche). My husband! Even though the distance is far (遐) from here or near (邇), it does not matter. My husband! The body (體) is one (壹), when the two persons have the close and intimate relationship.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ACKNOWLEDGEMENTS

The authors thank Mr Ilsoo Joseph Kim and Mrs Bohwa Maria Kim, Mr Yeonghag Park and Mrs Hilye Sarah Kim, Father Yang_eob Thomas Tchoi and Father Jean Blanc and Father Hifumi Iwazaki and Father Xavier Ha and Father Thomas Gil and Father Ikseon Gregorio Choi and Father Kyu-sik Cho, Mrs Tamako Hayashi and Mr Yoshihiro Hayashi, Professor Francine Tenaillon and Professor Nicolas Tenaillon, Professor Byeong Hwan Kim and the members of Chosun University High School, Professor Tae Song Koh and his wife, Professor Sook Ja Nam, Mrs Sookja Martha Min, Mrs Kisoon Cecile Song, Mrs Toshie Nakano and Professor Shigekata Yoshida, Madame Fasan and Monsieur Favier and Professor Ducauze, Father Wonhwa Joseph Lee and Father Hanyoung Marc Lee and the member of Daejeon Nae-dong Catholic Church, Father Byungdul Joseph Lee and Father Ildefonso Oh and the member of Daejeon Ludovich of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Professor Byoung Hoon Park and the student of Joongbu University, all the members of Jungni Middle School, staff sergeant Yong-Soon An and the truck driver (he rescued Augustin from the traffic accident), Okja and Hwansik and Seonju-Pilseong couple and Jieun Agatha and Céline and Aïlyne. The authors thank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REFERENCES

- Dallet, C. H.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Victor Palme. Paris. France, 11-99.
- Han, S. B. (1583). *Hanseogbong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ritten by Hanseogbong). (edited by Yeong Bae Zeong in 1984 on Songwon Publishing Company in Seoul. 1-136.)
- Kim, S. A. (2023). My Darling Hyeonhi, I am not ashamed of hearing your words! (Tcheonzamun 769th-78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5*(5), 202-205.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 Kim, S. A. (2021). Augustin often reminds Mrs Hilye Sarah Kim his mother in-law (The Second Translation of Tcheonzamun 449th -46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40-341.